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2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34)	봉헌 (217)	성체 (164)	파견 (130)
---------	----------	----------	----------	----------

제1독서 | 사도 5,27ㄴ-32.40ㄴ-41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 2ㄱㄴ 참조)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기록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 묵시 5,11-14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음 | 요한 21,1-19<또는 21,1-14>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21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4/28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5/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5/12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사순 희생 예물: \$30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05	\$	\$5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7	김 마론/ 김 헬레나	6/1	이 요한/ 이 마틸다
5/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8	유 요한/ 유 마리아
5/11	손 아놀드/ 손 쟈마	6/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5/1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6/2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5/2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6/29	김 요아킴/ 고 안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5월 2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Mother's Day 관계로 셋째 주일 5월 19일에 합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목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모임시간변경: 기존 목요일을 수요일로 옮겨서 합니다.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순 희생 예물 봉헌 안내**

사순 기간동안 단식등 희생으로 마련된 정성을 준비된 사순 예물 봉투를 이용해 봉헌 해주시기 바랍니다.

**Summer Festival (하마이카)**

오늘 하마이카 행사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참여와 봉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신앙의 시작**

-곽윤기 스테파노 | 쇼트트랙선수-

부족하지만 제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망설임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드리며 용기를 내봅니다.

어린 시절 신앙에 대해 생각하며 떠올리다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은 어땠나요?’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닐 텐데 이상할 만큼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제 신앙의 시작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저는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세례가 저에게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지금과 다르게(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산만하고 장난을 좋아하던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성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차분히 앉아 기도를 하고, 떠들거나 장난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부모님은 아직도 어린 시절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모습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폭발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체를 모시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껏속말로 이것 저것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성체는 어떤 맛이야? 성체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 왜 안 씹고 오물오물하는 거야? 아껴서 먹는거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준비가 되어야 모실 수 있단다. 세례를 받고 나면 너도 모실 수 있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첫영성체 수업이 시작돼서 저는 그 다음 해가 되어야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영성체 수업을 하는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성체 영하는 연습을 한다면서 신부님께서 그 당시에 유명하던 계란 과자로 연습을 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과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어린 마음에 ‘아. 성체도 그 과자처럼 너무 맛있는 것이라서 아껴먹느라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성체를 모시고 싶어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순수한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나 혼자만 중요하고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첫영성체 교리를 들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 남몰래 성호경을 그으면서 첫영성체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